투어 번호
LKW8TQ7NEY

모험적인 정신 (18일)

18일 · 17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8일 투어는 건조 지역의 고대 도시부터 산악 지대, 남부 및 동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스리랑카의 전체 범위를 아우릅니다. 네고롐보의 해변에서 시작하여 성스러운 도시 아누라다푸라, 암석 요새 시기리야, 폴로나루와의 유적지, 담불라 주변 국립공원을 거쳐 동쪽으로 파시쿠다로, 내륙으로 캔디, 키툴갈라, 누와라 엘리야, 엘라를 거쳐 마지막으로 남쪽 얄라와 갈레로 향합니다.

여행객들은 역사, 야생동물, 액티비티의 혼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수도원과 스투파, 동굴 사원과 암석 요새, 코끼리와 표범을 찾아 떠나는 두 번의 사파리, 켈라니 강에서의 화이트워터 래프팅, 엘라 주변의 기차 시대 산책, 파시쿠다와 갈레의 해변에서의 휴식 시간이 포함됩니다. 치아 사원, 캔디 문화 공연, 갈레 포트와 같은 문화유산 방문지는 피전 아일랜드, 마두 강, 흠마나야 분수공 같은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 투어는 전 일정에 걸쳐 기사 겸 가이드와 함께 개인 일정으로 운영되며, 이 가이드는 목적지 간 이동을 담당하고 각 장소를 소개해줍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서해안에 위치한 네곰보에서 시작되며,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오랜 전통의 어업으로 유명합니다.

네곰보 해변과 어업

네곰보의 모래사장 해변을 즐기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어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수상 스포츠와 다이빙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라앉은 50년 된 난파선 주변에서 산호와 해양 생물을 감상하며 수상 스포츠와 다이빙을 즐겨보세요. 이 난파선은 현재 다양한 어종의 서식처가 되어 있습니다.

Day 2 네곰보 → 아누라다푸라

이날은 스리랑카 불교의 발원지와 첫 번째 고대 수도의 유적지를 둘러봅니다.



미힌탈레

데바남피야티사 왕이 승려 마힌다를 만나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장소를 방문합니다. 산기슭에 남아 있는 사원 유적과 마힌다가 머물렀던 동굴, 그리고 암바스탈라 다고바와 마하 스투파를 비롯한 유서 깊은 스투파들을 둘러봅니다.

Dennis Sylvester Hurd · CC0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

10세기까지 천 년 넘게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폐허의 도시를 걸어봅니다. 곳곳에 흩어진 불탑과 사원 건물, 연못들을 보고, 한때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바나라마 스투파, 스리 마하 보디 나무,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 등 주요 명소를 방문합니다.

Day 3 아누라다푸라 →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이날은 석굴 사원 단지를 둘러보고 시기리야 바위 요새를 오르는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부터 이어져 온 석굴 사원에 들어가 부처의 일생을 그린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흩어진 수백 개의 부처상과 신상들을 감상합니다. 신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 그레이트 뉴 모나스터리 등이 포함됩니다. 동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시기리야 바위 요새

카샤파 왕이 세운 5세기의 바위 요새를 오르며, 바위에 이름을 붙여준 사자 모양 입구의 흔적을 지나갑니다. 유명한 벽화를 감상하고, 계단을 올라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와 테라스식 정원을 둘러보며, 옛 궁전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갑니다.

Wrobell · CC BY-SA 3.0

Day 4 담불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담불라

이날은 폴론나루와의 중세 유적지를 둘러본 뒤, 오후에는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였던 유적지를 걸어봅니다. 도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치세를 상징하는 기념물들,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욕조,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동상 등을 둘러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3시간 동안 사파리를 즐깁니다. 건기인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한곳에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 현상을 볼 수 있으며, 공원의 초지와 숲에는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5 담불라 → 파시쿠다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동해안에 위치한 파시쿠다로 이동합니다.

Day 6 파시쿠다

파시쿠다에서 호텔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쉬는 자유 일정입니다.

Day 7 파시쿠다

이날은 파시쿠다 해안에 있는 해양 공원을 탐험하며 보냅니다.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크고 작은 피전 아일랜드와 큰 섬을 둘러싼 산호초를 방문합니다. 이곳은 바위비둘기가 번식하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섬을 탐험하며 다양한 산호 종류와 해양 생물을 관찰해보세요.

AntanO · CC BY-SA 4.0

Day 8 파시쿠다 → 캔디

내륙으로 이동해 캔디에 도착하며, 저녁에는 전통 무용 공연을 감상합니다.



캔디 문화 공연

불의 춤, 칼의 춤, 그리고 전통 북소리에 맞춰 공연되는 캔디안 댄스 등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전통 공연들을 한 시간 동안 감상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9 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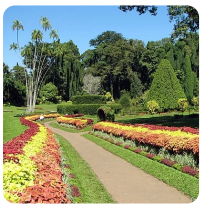
이날은 캔디에서 가장 유명한 두 곳, 즉 성스러운 사원과 식물원을 둘러보는 데 할애됩니다.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세워진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합니다. 빨강, 크림색, 검정색으로 장식된 통로와 벽화가 그려진 홀을 지나며,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들을 감상합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을 걸어봅니다. 난초, 향신료, 약용 나무 등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캐논볼 나무를 보고, 현수교를 건너며, 희귀 나무들이 늘어선 산책로와 울타리 미로를 걸어보세요.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0 캔디 → 키툴가라

이어지는 여정은 키툴가라로 향하며, 이곳에서 하루 동안 래프팅을 즐깁니다.

켈라니강 래프팅

켈라니강의 5km 구간에서 급류 래프팅을 즐기며,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Day 11 키툴가라

키툴가라 호텔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자유롭게 보내는 하루입니다.

Day 12 키툴가라 → 누와라엘리야 → 엘라

여정은 영국인들이 즐겨 찾던 휴양 도시 누와라엘리야를 지나 엘라로 계속됩니다.



누와라엘리야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의 휴양 도시였던 이곳의 거리를 걸으며 오두막, 빌라, 저택들을 둘러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옛 우체국을 방문하고, 퀸 빅토리아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3 엘라 → 얄라

이날은 엘라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둘러본 후 남쪽으로 얄라까지 이동합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차밭과 바위 지대를 지나 리틀 아담스 피크에서 멋진 전망을 감상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릿지

나인 아치 브릿지를 걸으며 그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철로 구조로 유명한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도보 여정을 마칩니다.

A.Savin · FAL

Day 14 얄라

이날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사파리를 즐기는 날입니다.



얄라 국립공원 사파리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얄라에서 3시간 동안 사파리를 즐깁니다. 스리랑카 표범, 야생 물소, 스리랑카 늘보곰, 그리고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5 얄라 → 갈레

갈레로 가는 길에 자연 블로우홀을 둘러본 뒤, 성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에 도착합니다.



후마나야 블로우홀

쿠다웰라 마을 근처에 있는 후마나야를 방문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블로우홀로 알려져 있으며, 바닷물이 뿜어져 나올 때 나는 깊은 울림 소리가 이 명칭의 유래입니다.

Dan arndt · CC BY-SA 4.0



갈레 요새

한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이었던 갈레를 둘러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로, 박물관과 등대를 방문하고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돌길을 걸어보세요.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6 갈레 → 벤토타 → 갈레

북쪽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 마두강에서 맹그로브 생태계를 따라 보트 사파리를 즐깁니다.



마두강 보트 투어

마두강의 맹그로브 수로를 따라 2시간 동안 보트를 타며, 일광욕을 즐기는 악어와 물왕도마뱀을 관찰하고, 계피를 재배하는 작은 섬을 방문합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물새들을 관찰하고 피시 마사지도 체험해보세요.

SUPindia · CC BY-SA 4.0

Day 17 갈레

갈레의 해변에서 여유롭게 쉬는 자유 일정입니다.

Day 18 갈레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출발 항공편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Entry Visa Fe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